

남구 “(재)남구장학회에서 제30회 장학생 뽑아요”

초등·중등·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대학생 선발

90명 선정, 최대 100만원…10월 2일까지 접수



(재)남구장학회 제29회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 발전 기여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재)남구장학회 제30회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間に 걸쳐 진행된다.

장학생 선발 인원은 초·중·고등학생 4명과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50명, 학교 밖 청소년 2명까지 총 90명이다.

초·중·고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생 선발자에게는 100만원을 제공한다.

장학생 선발 유형은 일반 장학생

과 행복나눔 장학생, 특별 장학생,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특기 장학생, 봉사·선행·효행 장학생까지 6가지이다.

공통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며, 선발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은 상이하다. 유형별 세부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에 남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됐거나, 원격대학과 기술대학, 2년 미만 교육 과정의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학교의 재학생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구는 서류 심사와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

월 23일에 장학생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4일께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남구장학회 사무국(☎ 607-24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전념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 기금 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구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서구, 부모·자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교’ 개강

4기 32가족 참여…도심 속 공원 연계·가족 체험 강화

10월 화정근린공원서 ‘놀이&예술 대축제’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부모와 자녀의 소통과 성장을 돕는 가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서구는 10월 화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32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서구 행복학교’ 4기 입학식을 열고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함께서구 행복학교’는 주입식·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서구에서 마련한 세대 공감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자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가족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과정은 대상과 주제에 따라 ▲자기 돌봄과 올바른 코칭법을 배우는 ‘부모 행복학교’ ▲자연 속에서 질문하고 또래와 협력하며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자녀 행복학교’ ▲주말 동안 도심 속 공원에서 놀이와 예술을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함께 행복학교’로 구성한다.

특히 미래교육·사고력·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 강사진과 함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 학습 모델을 운영한다.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경험하며 가족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더불어 오는 10월 화정근린공원

에서 ‘행복학교 놀이&예술 대축제’를 열어 행복학교 참여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놀이와 예술을 즐기는 자리를 마련해 도심 속 공원을 가족과 이웃이 교감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수별 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참여 가족 간 교류를 이어가고, 행복학교를 통해 형성된 건강한 교육문화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AI시대에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 따뜻한 대화와 스스로 생각하는 질문의 힘”이라며 “행복학교가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4기 행복학교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 속 소통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또한 참여 가족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가족 간 협력과 대화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 자녀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적인 사고력도 키운다.

서구는 교육 과정에서 나온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해 가족 중심의 건강한 교육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행복학교 4기 입학식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제26회 곡성심청

어린이대축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2026.10.8(목) - 11(일) 곡성심진강기차마을

